

하루를 시작하며



양경열 제주사랑 대표

지난주 출장을 다녀왔다. 제주도민만이 아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육지'에 다녀왔다. 제주도 사람들은 도와 지역을 말할 때 보통 육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왜 그럴까? 섬사람들이 가지는 끈끈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섬이라는 폐쇄성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런 폐쇄성은 옛말이다. 육지라는 말은 예전엔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 제주섬은 결코 폐쇄적이지 않다.

제주의 가장 큰 변화는 국제자유도시라고 본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도 벌써 십년이 넘었으며 이제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도에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외교

섬, 육지 그리고 상생

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산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주가 관광 휴양 도시, 첨단 지식 산업 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국제자유도시로 유명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조그만 어촌으로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가 있고 사막의 기적이 불리는 두바이 등이 있다. 두바이 같은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대를 이어 만들어 냈다. 세계 각국의 유능한 전문가 2000명을 투입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두바이를 건설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도 문제점은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중간보고서는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관광에 치우치거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편향성과 일부 부적합 사업이 있었다는 점,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했다는 점,

국가의 지원 부족과 도의 재정 역량이 취약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민자 중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 제주의 미래 환경을 고려한 보전 위주의 개발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배치되는 훼손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부동산 문제다. 국제자유도시 기간 대비 수익이 짧으면서 오름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 가격으로 인해 외부 자본들이 제주도 토지들을 과도하게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과장된 말로 제주도 땅 반이 중국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말도 한다. 문지마 투기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앞서 얘기했던 두바이에도 이런 일로 위기가 있었다. 자체 기반 없이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서 생긴 일이었다.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일하며 연구하고 있었지만 좀 더 창의적인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주자생 야생화농장을 만들면 어떨까? 한라산 고지대에 나는 것도 키워보고 멸종위기 식물들은 수경재배와 식물공장을 지어 LED 조명으로 기 능성이 첨가된 식물을 키우고 용암지하수를 이용해 불순물을 없앤 해초도 키우고 그런 연구를 하는 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미역이나 해조류로 유명한 섬 가파도를 통째로 유기농 섬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섬과 육지를 가르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하나의 섬을 접이라고 치면 그 접들이 모여 선이 돼 무언가를 잇고 면이 돼 확장되는 시대인 것이다. 제주도는 섬이자 접이고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빠르게 개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가게 되며 안으로 풀이갈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함께 잘 사는 것, 제주도라는 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는 것을 바랄 뿐이다.

> ... &

말로만 되뇌이는 '제주어 살리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인의 침탈 이후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토속어는 거의 사라져갔다. 최근 들어 코만치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어(死語) 되살리기 운동은 눈물겨울 정도다. 이들이 이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자신들의 정체성(正體性)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했다. 모두 5단계의 분류 중 4단계인 '아주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에 해당된다는 것. 마지막 5단계는 소멸(消滅)된 언어를 뜻한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제주어교육연구회(회장 문덕찬)는 도내 초·중·고 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용언 이해도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제시된 제주어 어휘 열개 중 고작 한개만 아는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선 제주어 용언(동사, 형용사) 가운데 자주 쓰이는 '간제하다' '곰닥하다' '놈드다' '베롱하다' 등 다수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는 초등학생 9.9%, 중학생 9.3%, 고등학생 15.0%에 불과했다.

특히 '튼내다'(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내다), '옥서르다'(남이 두려워하게 말로 으르다)와 같은 어휘는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 모두 '모른다'고 응답했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의 언어로 분류하면서 관련정책 수립을 비롯해 학교교육 강화와 일상생활 활용 등을 적극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 방안' 세미나도 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어를 지역어의 특징으로 인정하고 모어(母語)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제주어 살리기를 국가 의제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이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유네스코는 "하나의 언어가 사라지면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도구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警告)한 바 있다. 미국 인디언들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제주농업유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한 조사에 의하면 제주밭담의 총 길이는 3만6000여km로, 이 가운데 2만2000여km가 밭담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하면 돌담은 지구(地球)를 약 3바퀴, 밭담은 2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이다. 제주어 밭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칭하는 이유다.

제주밭담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올해 1월 청산도 구들장과 함께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登載)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 밭담의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산림경영경제학)팀의 조사 결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농업의 몰락과 그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제주밭담의 훼손률(毀損率)은 평균 1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환경면 관광구역의 경우 지난 2001년 100m 근경 내 밭담의 총 길이가 1만2462m였으나 2005년 실측시엔 8650m로 조사됐다. 4년 동안 30% 이상(3000m)의 밭담이 훼손된 것이다. 이같은 훼손 사례는 청산

이나 대정, 애월 등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 강승진 연구위원은 제주의 농어업 및 농어촌 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實態)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현재 '제주밭담 농업시스템'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총괄 실무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강승진 연구위원은 세계농업유산국가인 중국(8개지역 등재)과 일본(5개 지역)의 예를 들었다. 중국의 경우 세계농업유산 예비체계인 국가중요농업제도(NIAHS) 도입을 통해 매뉴얼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또한 도쿄에 있는 유엔대학(UNU)의 역할에 힘입어 5개 지역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시켰다.

따라서 가장 '농업유산발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를 담당할 전담조직 설치 시급하다는 게 강 위원의 진단이다. 이를 위해선 돌담이나 밭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認識) 제고가 급선무다. 제주자치도가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주문한다.



향수의 왕따

SNS, 독자와 만나다

f /hallailbo

@hallailbo

●연장掌 @RagePalm 10월 4일 동양증권 회장에게 이레선 안된다며 자신의 고객들의 돈을 꼭 상환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제주도의 동양증권 직원을 볼 때, 자신들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논리만을 내세워 물타기하고 되려 상대 비방을 일삼는 정치판이 정말로 한심하다.

●제주커피축제/제주커피세미나@jejucoffeeNO1 제주커피농장이 7년이 되었습니다. 제주커피를 수확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작은행사였던 커피축제가 벌써 4회가 되었네요. 이번 주말 12, 13일 제주커피농장에서 또 함께 나눠요.

한라일보 홈페이지 댓글

중국투자 영향 분석 TF팀 구성 운영(10월 4일 ihalla.com)

●부총필 제주를 세계자연유산 7대경관이라고 홍보하는 이 시점에, 투자자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수익만 챙기는 중국투자에 대해서 제주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숙박-음식점-면세점(토산품)을 만들어 중국여행사와 직거래로 수익은 전부 중국자본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는 관광 정책이 어렵군요.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10월 4일 ihalla.com)

●해오름 고객의 피해를 보고 회사업주는 현금 물래 숨겨졌다가 호의호식 하지도, 금고에 몰래 숨겨져 거, 돈 잃은 이들에게 돌려주세요.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Advertisement for 변호사 임흥순 법률사무소 (Lawyer Im Heung-soon Law Firm) listing services like business registration, debt collection, and legal consultation.

Advertisement for 특수방수 강정건설 (Special Waterproofing Gangjung Construction) showing a cross-section diagram of a building's waterproofing system.

Advertisement for 웅진석재건설 (Woongjin Stone & Construction) listing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like crushed stone, gravel, and concrete blocks.

Advertisement for 티엔정보기술(주) (Tien Information Technology Co., Ltd.) highlighting their IT solutions, network services, and customer support.